

제4절 동학농민혁명*

1. 전남 동부지역의 동학 수용과 활동

1862년의 농민항쟁이 거세게 몰아친 후에도 농민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안으로는 외척세력의 발호와 세도정치의 폐단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밖으로는 서양과 일본세력의 침략이 차츰 노골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위기의식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더욱이 삼정의 문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이완되면서 관리의 가렴주구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조선정부는 산적한 모순을 해결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

이무렵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 1824~1864)는 동학(東學)을 창시하였는데, 당시 방황하는 조선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북돋아주었다. 동학은 먼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서양과 일본세력의 침투를 경계하였다. 또한 후천개벽론(後天開闢論)을 통하여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시사하였다. 그리하여 동학은 억압과 수탈의 굴레에 신음하는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수용되었다. 동학에는 새로운 사회의 도래와 사회변혁을 갈망하는 당시 민중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남 동부지역의 경우에는 과연 어느 시기에 동학이 들어왔을까. 아마도 전남 동부지역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890년을 전후하여 동학교인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나 한다. 예컨대, 전남 고흥 출신의 송연섭(宋年燮)과 광양 출신의 조두환(趙斗桓)은 1890년에 각자의 고향에서 입도하였다. 이들은 모두 20대의 나이로 동학에 입교하였으며, 보은취회와 동학농민혁명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그후 이들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 해당 지역의 유력한 천도교 지도자로 성장, 활동하였다.¹⁾

1893년 5월에 충청도의 보은에는 수많은 동학교인과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이 자리에서 동학교단은 교조신원뿐만 아니라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표방하였다.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의 동학교인들도 보은취회에 적극 가담하였다. 구례에 거주하던 황현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때(1893 : 필자) 동학인들은 서쪽으로 임피·함열에서 동남쪽으로 광양·순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를 팔고 행장을 꾸려 식량을 준비하고 표주박을 이고 배낭을 짊어지고 기일에 맞추어 도착하느라 도로가 메워졌다. 민간에서는 소동이 일어났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며, 수령들도 두려움에 위축되었고 군영의 장수들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현역 오하기문』, 66쪽)

* 제4절은 홍영기(洪英基) 집필임.

1) 김재계, 「故琴庵宋年燮氏를 追悼함」, 『天道教會月報』252, 1931. 12 ; 허남호, 「故蕭庵趙斗桓氏를 追悼함」, 『천도교회월보』279, 1935. 9.

순천 등지의 동학교인들이 비장한 각오로 보은취회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보은의 교조신원운동에 순천과 광양의 동학교인들이 소와 밭을 팔아치우고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보은취회에 가담한 순천의 동학교인 숫자는 적어도 50여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²⁾ 이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순천을 비롯한 전라도 농민들이 보은취회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저항적이었다고 한다.³⁾ 그것은, 전라도지역의 농민들이 정부의 가혹한 수탈로 말미암아 반정부적인 감정이 다른 도민에 비해 더욱 깊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동학의 종교적인 면보다는 정치적인 면에 더 관심이 많았고, 현실의 여러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였다.⁴⁾

그런데도 수령의 탐학과 이서배의 가렴주구는 날로 증가하였다. 이를 견디지 못한 전라우도 고부(古阜)의 농민 1,000여 명은 1894년(고종 31) 2월에 동학접주 전봉준의 지휘로 고부군아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모두 흰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죽창과 몽둥이를 들고서 봉기한 것이다. 이들은 군아에 보관 중인 무기를 탈취하고 불법으로 수탈한 곡식을 빼앗아 빈민들에게 분배하였으며, 원성의 대상인 새로운 보를 부숴버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부는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를 안핵사로 파견하여 조사하였다. 안핵사 이용태는, 진상조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일체의 죄를 동학교인에게 돌려 살상·체포·방화·폭행 등을 일삼았다. 이에 격분한 전봉준은 동학접주인 손화중(孫和中)·김기범(金箕範, 개남) 등과 함께 보국안민을 표방하며 인근지역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에게 격문을 돌려 고부의 백산(白山)에 집결시켰다. 음력 3월 25일(양 4. 30.) 삼시간에 모여든 1만여 명의 농민군들은 전봉준을 총대장, 손화중·김개남을 총관령(總管領)으로 추대하였으며, 백산에 호남창의소(湖南倡義所)를 두었다.

전봉준의 격문은 순천에도 전달되었던 것 같다. 순천 출신의 박낙양(朴洛陽)이 백산봉기에 두령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⁵⁾ 박낙양은 전봉준의 주장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순천의 농민군을 모아 백산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이들은 전봉준의 지휘를 받으며 활약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활동은 찾을 수 없다.

백산에 모여든 1만 명의 동학농민군은 군사활동에 돌입하여 정읍·부안·흥덕·고창·무장 등지를 차례로 점령함으로써 전라우도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모두 석권하였다. 드디어 농민군은 5월 31일에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농민군이 백산에 집결하여 본격적인 항쟁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에 전라도 감영이 위치한 전주를 함락한 것이다. 이 소식에 가장 당황한 세력은 조선왕실과 중앙정부였다. 결국 청나라에 군대의 파견을 요청하자, 청국은 6월 초 군함 2척과 2,500명의 군인을 조선에 파견하였으며, 일본 역시 6,0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바야흐로 조선의 내정문제가 청일양국의 국제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6월 11일에 농민군 지도부는 정부에 30여 조의 폐정 개혁안을 제시하여 이른바 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맺었다. 당시 농민군의 요구조건은 크게 정치와 경제 두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탐관오리의 숙청과 매관매직 행위의 근절이었다. 후자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라는 것과 외국인의 상행위 금지와 미곡의 국외반출 금지 등이 주요한 조건이었다. 또한 농민군들은 전운사와 군전사의 혁파, 동학교조의 신원(伸冤), 전보

2) 국사편찬위원회, 『동학란기록』상, 1959, 125쪽.

3)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23쪽.

4) 이광린, 『한국사강좌』V 근대편, 일조각, 1983, 281~283쪽.

5) 오지영, 『東學史』, 永昌書館, 1940(『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1, 여강출판사, 1994, 459쪽).

국(電報局)의 혁파 등을 내세웠다.⁶⁾

전라도 관찰사에 새로이 부임한 김학진(金鶴鎭)은 전봉준에게 관민상화책(官民相和策)을 협의하여 각 군마다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⁷⁾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는 전주에 두고 각 군의 집강소에서는 치안을 담당함과 동시에 폐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집강소를 통한 개혁운동은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자리를 잡아갔다.

6) 이광린·신용하,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근대편, 일지사, 1984, 136~139쪽.

7) 국사편찬위원회, 『통학란기록』상, 1959, 64~65쪽.

